땅끝까지

2018*05+06 vol.105
To the ends of the earth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선교사 성소 증진을 위하여

성소(聖召)란 '거룩한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 인간을 부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부르셨습니다. 한 그룹은 자신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그룹은 자신들의 안정된 생활과 가족까지 다 버리고 완전히 다른 생활을 택한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두 가지 길은 계속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평신도로서, 둘째 그룹은 성직자, 수도자로서 제각기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특별히 가꿔 나가야 할 성소는 둘째 그룹에 해당하는 성소입니다. 성직자, 수도자의 길을 걸으려는 젊은이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부활 제4주일을 성소 주일로 정해, 사제직과 수도 생활로 불림을 받는 젊은이가 많아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더욱 성화되도록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뇌를 이해하고, 함께 나누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특별한 의미의 성소는 선교사 성소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말씀을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선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제자들에게 선교사 성소를 불어넣으시어 특정한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들을 파견하십니다. 선교사들은 신앙과 순명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길을 떠납니다(선교 교령 23항).

선교사 역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교황청 전교기구 후원 회원처럼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이들입니다.

둘째 그룹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지에서 갖은 역경을 이겨 내며 직접 선교 활동을 하는 이들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하느님께서 보여 주시는 낯선 땅에서(창세 12,1 참조) 선교사의 길을 걷는 이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들이 열정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많은 기도와 사랑, 후원이 필요합니다. 전교기구 후원 회원들의 역할 증대와 회원 배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 선교사들이 더욱 귀한 존재가 되어 나갈 것이며, 선교사 성소 증진을 위한 노력도 큰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지부장 김 준 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Contents

02... **소금 등잔** _ 김준철 신부

04... **말씀 그루터기** |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요한 5,30) _ 김성현 신부

08... **한국에서 일한다** | 단 타므랏 요셉 신부

18... **선교 이야기** | **멕시코** · 멕시코에 퍼진 한국 교회의 나눔 _ 정명희 수녀

21... **지원 후기** | **해외선교사학교** · 선교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_ 김성준 신부

캄보디아 · 선교 생활의 아름다움 _ 이옥연 수녀

28... **사랑방** | 고통을 통해 주신 귀한 선물 _ 진양자 베드로 사도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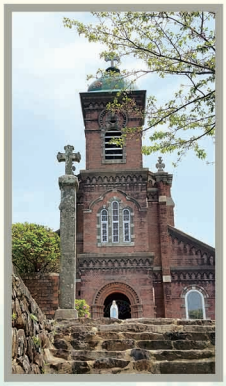
30... **세계 교회 소식**

32... **해외에서 온 편지**

33... **알림터**

35... **후원 소식**

38... **기도**



표지 _ **일본, 나가사키 대교구 다비라 본당**

2018년 05+06월 [제105호]

『땅끝까지』는 선교사들과 선교 지역의 교회를 돕는 전교회, 베드로 사도회, 전교연맹 회원들을 위하여 펴냅니다.

발행일 2018년 5월 1일 **발행인** 김준철 신부 **편집인** 장형심 수녀 **편집** 문혜영, 박소라 **발행처**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주소 (㉾04918)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중곡동) **전화** (02)2268-7103, 460-7608~11 **팩스** (02)2268-7104
E-mail pmsk@pmsk.net **website** www.pmsk.net 제자 서체: 제주한라산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요한 5,30)

글 |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 (대전교구, 몽골 선교)

요즈음 유목민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구제역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20킬로 전까지 구제역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못된 바이러스가 우리 마을과 동물을 해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현지인 본당 사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하 사스)이 몽골에도 위협을 주어 공공장소에서 집회가 금지되었습니다. 본당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전례와 주일 학교를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되었습니다.









사스가 무서워 냉큼 미사를 중지할 것인가! 하느님의 사랑을, 그 전능하심을 선포한 선교사로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는 사뭇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미사 가운데 주님의 기도를 모두 손잡고 노래했는데 이 화합과 사랑의 행위가 이제는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천만한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손이 갔던 성수 그릇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까지 하느님을 우선으로,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이번만은 예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본당에서 병이 전염된다면, 맹신적이며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종교 집단으로 몰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교사는 어찌해야 할까요?





참으로 비둘기처럼 양순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워질 필요가 막급했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것을 사랑으로 설명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비슷하게 공지했습니다.

참으로
비둘기처럼
양순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워질 필요가
막급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미사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아서 그가 불편해할 수 있다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한 상황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는 행위이며, 이웃을 위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성당 안팎을 다른 장소들보다 더욱 진하게 소독하겠습니다. 이 또한 사랑에서 나오는 배려입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은 매우 구체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도전 앞에서 신앙의 길을 열어 나가고자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 미사를 봉헌했고 우려했던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우리 성당은 대문 손잡이에서부터 시작하여 건물 전체가 진한 소독약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과연 코끝을 마비시키는 듯한 냄새는 사랑의 향기로 승화되었을까요? 그때를 기억하는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추억으로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잊기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은 매우 구체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도전 앞에서 신앙의 길을 열어 나가고자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친구' 학원에는 실력 차이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개인 교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해마다 새로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판단의 실수도 잦겠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랑이었는지 늘 되묻습니다.

오늘 모처럼 찾아온 아이들이 짹짹대는 참새들처럼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해에도 계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있고,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될 때까지 있을 건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봄 햇살처럼 제 마음을 환하게 밝혀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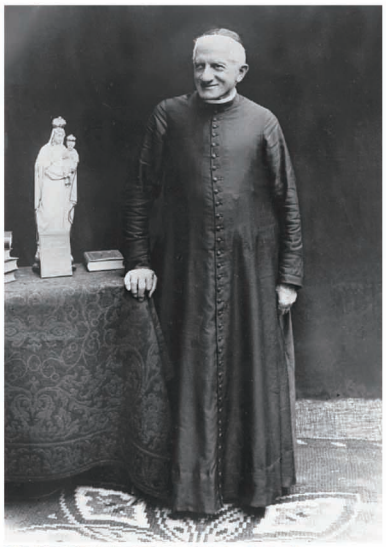


꼰솔라따 선교 수도회 Consolata Missionaries

설립일: 1901년 1월 29일 / 한국 진출일: 1988년 1월 20일

단 타므랏 요셉 신부 (Rev. Lemillo Tamrat Defar)







이탈리아어로 '위로'라는 뜻을 가진 꼰솔라따 선교 수도회는 복자 요셉 알라마노 신부가 설립한 수도회로, 위로자이신 성모의 영성 아래 시작되었다. 수도회 형제들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알리리라."(이사 66,19)는 모토와 '먼저 성인이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창설자의 말씀에 따라 복음화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종교 간 대화 활동으로 유명한 수도회이지만, 이주 사목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의정부 북부 지역에서 이주 사목을 담당하는 한국의 첫 아프리카 출신 선교사 단 타므랏 요셉 신부를 만났다.

고향 에티오피아 나자렛에서 했던 신앙생활이 궁금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알고 있던 나라예요. 지금은 에티오피아 정교 43.5%, 이슬람교가 34%를 차지하고 천주교는 1%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80여 개의 부족이 함께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저의 아버지는 에티오피아 북부 지방의 에티오피아 정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남부 지방의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결혼할 당시에는 다른 부족과 결혼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금지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두 분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정교회 신자가 되기로 하면서 결국 두 분은 결혼했어요. 저도 부모님을 따라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정교회 신자로 자랐어요.

아버지 집안사람들은 아버지가 남부 지방 사람과 결혼한 것 때문에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았어요. 반대로 외가 친척들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그 가운데 천주교 사제인 외삼촌이 제가 10살 무렵에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게 되었어요. 그때 외삼촌이 집 주변에 본당이 어디 있는지 물었는데 저는 정교회를 다녔으니 몰랐지요. 다행히 집에서 7킬로 떨어진 원지라는 지역에 꼰솔라따 신부





부모님



외삼촌 신부님과 함께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도
아버지에게는 그저
철학을 공부하러 대학교에
간다고만 했어요.

님이 센티메리 본당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7킬로 떨어진 곳은 가까운 거리예요. 이날 처음으로 외삼촌을 따라 본당에 가게 되었고, 이후로 신부님과 친해져 토요일마다 본당에 가서 교리를 배우고, 복사 연습을 했어요. 신부님도 우리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였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집안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저에게 과자와 사탕을 주면서 아주 잘해 주었어요. 이런 계기로 저는 성소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가톨릭에서 하는 청소년 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제가 가톨릭 신자이고 가톨릭 사제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정교회에 아주 깊은 믿음이 있었고, 보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도 아버지에게는 그저 철학을 공부하러 대학교에 간다고만 했어요.

수련기와 신학생 시절은 어떻게 보냈나요?

저는 케냐에서 수련을 받았어요. 수련소에는 케냐와 우간다 그리고 탄자니아 등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화와 언어가 달랐어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수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언어 학원을 다녀야 했는데, 저는 외국인 신부님과 소통하면서 얻은 영어 실력 덕분에 바로 수련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수련받을 때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이 많지 않아서 지도 신부님이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 주었어요.

케냐에서 1년 동안 수련기를 마치고 신학을 공부하러 런던에 갔어요. 처음 런던에 도착했을 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살았고 케냐에서도 시골에서 수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런던에서 도시 문화를 접하니까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또한 저는 누군가 저를 지도해 주는 삶에 익숙했는데 런던에서는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심지어 한 달에 한 번씩 지도 신부님과 면담할 때에도 신부님은 불편



케냐 사가나에서 첫 서원



케냐 관구장님 앞에서 첫 서원



런던에서 종신 서원

한 것은 없는지, 행복한지 등 가벼운 질문만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성소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고 독립심도 생겼어요. 한국 선교를 위한 준비가 런던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많은 신학생이 사제가 되는 길을 포기했어요. 영국은 유학생이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주말이 되면 시간제 근무를 하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유혹과 만나면서 많은 신학생이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저는 토요일에는 주로 동기들과 축구를 했고, 주일이면 지도 신부님과 함께 본당에 가서 사목 활동을 하거나, 런던의 에티오피아 공동체에 방문했어요.

사제 서품을 받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어머니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행복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아들이 생겼다고 좋아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직도 제가 사제를 그만두고 결혼해서 살기를 바라요. 사제가 되어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은 괜찮은데, 독신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요. 정교회 사제는 결혼할 수 있으니까, 정교회 사제는 괜찮다고 했어요.



서품식

한국 파견을 알게 되었을 때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제가 부제품을 받을 때 때마침 한국에서 선교했던 신부님들 가운데 3명이 다른 나라로 파견되었어요. 총원에서는 부족한 인원을 채우고자 먼저 지원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한국으로 선교를 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지도 신부님의 지목으로 저를 포함한 3명이 한국 선교를 임명받았어요.

함께 파견되는 신부들과 한국을 공부하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배워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있는 곳에 교포 사목으로 파견된 안동교구 안셀모 신부님이 떠올랐어요. 그 신부님은 우리에게 한국은 신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파견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지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국으로 오는 도중에 이탈리아를 경유해서 우리 수도회원들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선교한 디에고 신부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디에고 신부님은 명석하고 솔직한 성향을 가졌어요. 신부님은 우리에게 이탈리아 사람으로 한국에서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교황청이 있는 나라에서 왔다며 신자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탈리아면 교황청인 것처럼 나라와 연관되는 단어를 생각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와 다르게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하거나 입맞춤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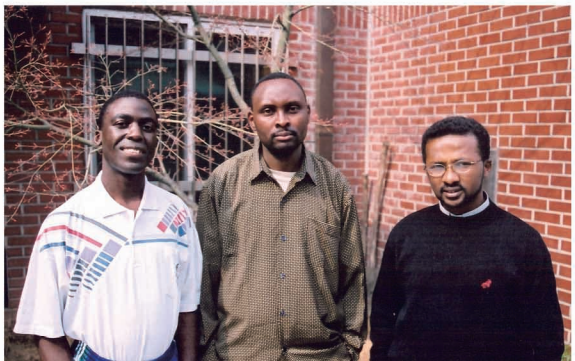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공항에 신부님 5명과 후원회 임원 6명이 왔어요. 이때까지 다른 나라 공항에 도착하면 한 사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환영은 처음이었어요. 아프리카 출신으로는 우리가 처음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였어요. 임원들은 꽃다발도 준비해서 우리에게 선물했고, 모두 우리를 포옹해 주었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바야흐로 2002년 월드컵이 있던 해였어요. 이때 한국은 정말 정이 많은 나라라고 느꼈어요. 축구 경기를 보러 경기장에도 갔는데, 어디를 가도 붉은 악마 티셔츠를 무료로 나누어 줬고, 함께 응원하면서 하나가 되었어요. 월드컵 덕분에 한국어 자격증 시험은 보기 좋게 떨어졌지만, 정말 잊지 못할 추억들이 많이 생겼고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한국 도착



한국에 함께 온 동기 신부들





구룡마을 공부방 어린이 · 봉사자들과 함께



검단동본당 초등부 미사 / 주일 학교 교사들과 함께

이주민 사목을 맡기 전에 빈민 사목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빈민 사목은 우리 수도회가 한국에 진출하면서부터 시작했던 사목이에요. 지금은 이 공동체가 사라졌지만 제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3명의 신부님이 구룡마을에 공부방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휴가를 가야 하니까 그 공백을 채우려고 제가 3개월씩 2번 구룡마을에서 지냈어요. 구룡마을 공동체는 집이 정말 작았고 열악했어요. 방 한 칸에 3명의 신부님이 함께 자고 한 공간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밥 먹고, 텔레비전도 봤어요.

구룡마을에는 우리 수도회 말고도 프라도 수녀회 수녀님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빈민사목을 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구룡마을을 프라도 수녀회에 맡기고 다른 사목을 찾았어요.

청년 사목은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서강대학교 어학원 졸업식

2005년에 서강대학교 어학원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청년 사목을 했어요. 스페인에서 온 오유진 신부님이 청년 사목을 하려고 생각하던 가운데 서강대학교에서 교리를 가르칠 신부와 수녀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함께 신청했어요. 다행히 우리를 환영해 주었고, 12명의 학생에게 교리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자원봉사단과 케냐 방문, 2007년

이렇게 서강대학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학교의 부탁으로 본당에서 영어 미사를 격주마다 집전하게 되었어요. 이때 우리도 서강대학교에 부탁해서 주마다 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케냐로 자원봉사를 갈 청년들을 모집했어요. 케냐로 자원봉사를 가기 전에 우리는 주마다 선교 교육을 했고 케냐에 가서도 자원봉사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동두천 이주민 사목이 시작되었고 그곳으로 파견되면서 청년 사목을 못하게 되었어요.

이주민 사목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남미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구룡마을 사목을 끝내고 새로운 곳을 물색하던 가운데 이한택 주교님의 초대로 동두천 지역에 있는 남미 공동체에서 미사를 집전하게 되었어요. 6개월은 부천에서 지내면서 동두천에 집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할까 너무 고민이 되었는데 당시 지부장 신부님이었던 디에고 신부님이 집을 결정해 주었고, 지금까지 그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동두천 공동체는 지은 지
40년이 넘은 집이라
수리할 곳이 많았어요.
특히 외풍이 심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동두천 성 빈센트 요양원 할머니들과 함께



이주 사목을 위한 동두천 분원

동두천 공동체는 지은 지 40년이 넘은 집이라 수리할 곳이 많았어요. 특히 외풍이 심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주민 사목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이주민 사목은 교구에 속한 사목이라 교구 사제들과 협력하면서 사목을 해요. 달마다 지구 모임에 참석해서 활동을 보고하고 계획을 세워요. 처음 이주민 사목을 시작하고 5년 동안은 영어 미사를 담당했는데 도시를 돌아다니며 주일 미사를 4대씩이나 집전했어요. 그러다가 의정부 북부 지역의 이주민 사목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이주민 사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이주민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으니까 마음을 닫은 사람들이 많고 그들끼리만 서로 위로하고 다독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친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한국인 봉사자가 이주민 성가대에서 봉사했는데 이주민들이 겉으로는 인사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해요. 마치 봉사자가 자기들을 감시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봉사자가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하고 성가대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주었어요. 그때서야 '자신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여 주었어요.

이주민 사목을 하면서 힘든 점은 이주민들이 자신의 속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담아 두고 있다가 도저히 손쓸 수 없을 때 저에게 와서 털어놓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해결해 줄 방법이 없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가정 문제라던가 경제적인 문제 등 애초에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고요. 이런 일들을 상담하고 있을 때면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제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맞을까 의문이 들고 속상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 힘이 되리라 생각하며 지내고 있어요.



대만 꼰솔라따 첫 번째 성당



총장 신부님 한국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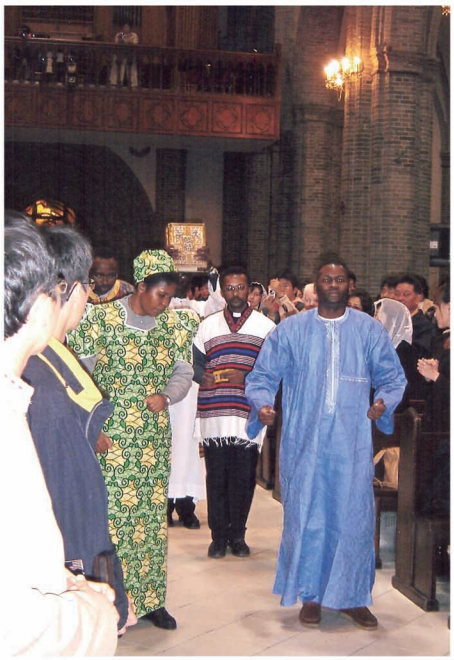
수도회의 첫 아시아 관구장이 되었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2016년에 수도회 본부에서 한국, 대만, 몽골을 묶어서 관구를 만들었고, 제가 첫 관구장으로 뽑혔어요. 저는 동두천밖에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인데 왜 관구장으로 뽑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총장 신부님이 관구장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책임을 질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더니 이 일은 하느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며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저는 총장 신부님의 말에 힘을 얻어 관구장직을 받아들였어요.

관구장이 되면 참사들과 1년에 2번 회의를 해요. 관구장이 되고 첫 모임에서는 관구의 재정을 파악했고 수도회 본부의 경리 담당자도 와서 함께 의논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임은 작년 7월 30일에 있었는데 우리 수도회에서 타이완 신죽 지역의 성심 본당을 사목하게 되어서 그 기념 미사에 참여하려고 타이완에 다녀왔어요. 성심 본당은 본래 예수회 신부님들이 40년 넘게 사목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회 신부님들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본당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우리 수도회가 담당하게 되었어요. 기념 미사는 타이완 신죽 교구의 교구장 주교님이 집전했어요. 미사 가운데 옛 본당 신부와 새 본당 신부의 인사가 있었고, 교구장 주교님도 새로 온 신부와 신자들 사이의 협조를 부탁했어요.

올해 수도회가 한국에 진출한 지 30주년이 되었지요?

우리 수도회는 전통적으로 꼰솔라따 성모 축일인 6월 20일에 가까운 주일에 축하 행사를 해요. 꼰솔라따 성모님을 위한 특별한 독서와 복음을 읽고 미사 예식도 있어요. 올해도 역시 꼰솔라따 성모 축일에 미사를 하면서 30주년을 기념하려고 해요. 그리고 후원자들과 함께 30주년 기념으로 콜롬비아 선교지 순례를 기획하고 있어요.





명동 성당에서 전교 주일 행사 참석

해외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한국인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정말 큰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백 프로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그 지역에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수도회의 이동욱 베니뇨 신부는 케냐 몸바사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물이 필요한 지역에 우물을 파는 일을 해요. 우물 하나가 큰 도움이 될까 싶지만, 정말 큰 기쁨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어요.

사제는 신자들의 삶을 듣고 이해하고 이야기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체험이 없다면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아요. 처음 사제가 되면 체험이 없어서 공부했던 개념만 이야기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선교를 나가서 체험하는 것은 사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에요.

2018년 계획
'콜롬비아와 페루 선교지 순례'







멕시코에 퍼진 한국 교회의 나눔

글 | **정명희 안나 수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멕시코 선교)

2017년 10월 15일에 이곳에서 멕시코 선교 3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국한된 기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 창립 200주년이었던 1984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결정한 표어는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였고 남미에 순교 정신이 임하도록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 남미 선교를 일임했다고 합니다.

우리 수녀회는 멕시코 오악사카주 테우안테펙 교구장의 부탁으로 1987년 10월 15일부터 멕시코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선교를 시작했을 때 멕시코의 경제는 한국의 60년 전 모습이었으나 지금은 급성장해 '멕시코에서도 선교하나?'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





다. 하지만 30년 전 90%였던 가톨릭 신자 비율이 85%로 줄었고 세례를 받았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현실에서 멕시코에는 신자 재교육 선교가 필요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공동체에서도 세례를 받은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공동체 속에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도록 신앙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지구 살리기의 하나로 북쪽 선교지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모으도록 교육했고 모범을 보이니 주민들이 모두 함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남쪽 선교지에서는 이엠[1]을 만들어 땅을 살리는 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101호에 실린 홍성철 신부님 글의 제목 '어디서나 비슷한 우리의 생활'을 보면서 "옳거니 케냐 선교 3년 만에 제대로 파악하셨네." 하며 무릎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 23년 동안 겪은 수많은 경험과 감동적인 글을 기록하자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어디서나 비슷한 우리의 생활'입니다.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선교사의 글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 이엠(EM):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으로 미생물의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악취를 없애고 물을 깨끗이 한다.

멕시코 선교 30주년 기념







엘 쿠스토디오 공소

자르테네조 공소, 총원장 순시와 주교님 미사 집전 후




샌안토니오 마을 미사



오래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에 한국 가톨릭 역사를 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개하는 동안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기에 스페인어로 제대로 표현했다며 속으로 기뻐하면서 어떤 부분이 감동적이었는지 물었는데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선교사 없이 가톨릭 신자가 한국에 생겨났다는 대목을 듣는 순간 믿어지지 않았고 그 벅찬 감동에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에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103위 순교자를 시성하신 경위까지 들려주었습니다. 멕시코는 487년 역사를 가진 가톨릭 교회이지만 스페인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 받은 신앙이기에 한국 교회를 기적의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 역사와 박해 받은 순교자들을 자세히 전하는 기회가 되어 참으로 기뻤습니다.

멕시코 선교는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축복의 선물입니다. 선교 30주년을 계기로 우리 수녀회는 자체 평가를 하면서 새로운 선교지에서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특수 목적인 순교자 현양을 목표로 선교하자는 각오와 함께 새로운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선교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글 | **김성준 알베르토 신부** (한국외방선교회, 한국외방선교회 선교센터장)

한국 가톨릭 안에서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수도회도 선교사 파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센터에서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의 지원을 받아 선교사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한국 교회의 선교 열기에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교육의 첫 번째 과정은 '해외선교사학교'입니다. 해마다 3월 초에 개강하여 10월까지 30주에 걸쳐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수강생들은 해외로 파견될 예정이거나, 선교에 관심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입니다. 교육 과정은 3학기이며, 1학기에는 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학문적 토대를 형성하고, 2학기에는 선교지의 사회, 문화, 종교에 관한 문제에 심도 있게 접근하여 교회가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성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는 교회의 보편 사명인 선교와 선교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삶과 신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선교 영성을 심화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까?"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고 성화되었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선교아카데미'로 서울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해외선교사학교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단기 교육 과정입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하반기에 1주일 동안 진행되는 선교아카데미는 작년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인천교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선교사 교육 과정과 더불어 한국외방선교회는 선교에 뜻을 같이할 교구 사제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협력 사제로서 선교지에 파견하여 지역 교회의 발전을 도우며, '받는 교회'였던 한국 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에 참여했던 사제와 수도자들이 지금은 해외에 파견되어 치열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은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까?"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고 성화되었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제, 수도자, 선교사들의 몫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신앙의 본성입니다. 직접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는 생활 속의 증거도 선교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를 하느님께 받았으니, 복음 선포는 하느님 백성의 근본적인 임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복음의 기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거짓 안도감을 주는 조직들 안에, 우리를 가혹한 심판관으로 만드는 규칙들 안에,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습관들 안에 갇혀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움직이기를 바랍니다"(49항).

교회는 '선교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밖으로 향해야만 하고 우리의 몸은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실천하고자 세상에 뛰어들고 가장 낮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향해 걸어가는 더럽혀진 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상기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의 발도 주저 없이 더럽힐 수 있을 때 비로소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선교 교령 2항)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는
2016년 3월 4일에
제5차 해외선교사학교 운영을 위해
한국외방선교회
김용재 안드레아 신부에게
5,000,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성 미카엘 본당



프놈펜 공동체의 수녀님들과 함께

선교 생활의 아름다움

글 | **이옥연 율리아나 수녀**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캄보디아 선교)

유럽에서 편안한 수도 생활에 나태해지고 개인 성소에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 수도회 총장님이 저를 가난한 나라로 파견하고자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어느 나라로 파견되는지도 모른 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곳으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2006년 6월 5일 처음으로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복을 입은 필리핀 수녀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언어를 쓰는데 어느 것 하나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몰래 흘리면서 천천히 주어진 상황에 익숙해지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은총에 매달리게 되었고 생애의 모든 순간에 그분의 현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2코린 12,9).

반년 동안 캄보디아어를 배운 뒤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캄보디아어는 많이 어눌했지만,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악적 재능으로 가톨릭 성가 악보집을 만들었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제가 만든 성가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기회만 생기면 모기와 벌레들이 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모기에 물린 오른쪽 다리가 두 번이나 세균에 감염되어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1. 벙따쁘롬 공소
본당과 30Km 떨어진 가장 가까운 공소.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1


2


3

2.3.4. 꺽정 공소
본당과 38Km 떨어진 공소.
고마움을 표시하는 아이들.
캄보디아 전통 춤을 배우는 아이들


4


5

5.6. 스라에엄벌 공소
주님 성탄 대축일.


6


7



8



9

7.8. 뜨라엥뜨러윤 본당
수리를 마치고 새 제대 축성 마사.
유치원 졸업식.

9. 꺼꽁 공소
본당과 240Km 떨어진 공소.







마을들이
외진 곳에 있어서
외부 행사 참여와
유치원을 탐방하려면
차를 타고 종횡무진으로
다녀야 합니다.

여러 공소를 다니면 가는 곳마다 아픔이 뒤따릅니다. 한번도 학교에 갈 기회가 없던 아이들을 만나고, 버려진 노인과 환자를 알게 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가난한 이와 접하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선교 여정에서 안타까울 때도 많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읍내에서 멀리 떨어져 학교에 갈 수 없는 산속 마을의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아직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까지 갈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봉헌해 준 이들, 아이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홀로 사는 노인과 가난한 이들에게 생필품을 챙겨 주도록 도와주는 이들 등 이외에도 무수한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는 이들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결코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의 도움으로 11인승 자동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본당은 아주 낡은 자동차 2대를 사용했습니다. 교구 행사에 참여할 때 8개 마을의 이동 수단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환자들을 병원이나 기관에 데려갈 때, 가난하고 돌보아 주는 이 없는 노인들을 기관으로 데려갈 때, 세상을 떠난 이들을 장지나 성당으로 데려갈 때마다 차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들은 연식이 오래된 나머지 자주 수리를 맡겨야 했고, 선교 활동을 위한 비용이 차를 수리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차를 갖는 것이 우리의 열망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열망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기쁨과 함께 성 미카엘 본당 공동체를 대표하여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저를 지탱해 주는 공동체 생활, 우리 각자에게 힘을 실어 주는 기도 생활, 순간마다 삶에 영감을 주는 그분의 사랑이 저를 기쁨 안에 머물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수도회의 모토인 '영혼 구원'을 위해 두려움 없이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데, 그들을 사랑하는 데 지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는 2016년 10월 12일에 캄보디아 성 미카엘 본당 차량 구입을 위해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이옥연 율리아나 수녀에게 27,813,3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차를 구입했어요. 우리 본당 차, 멋지죠?





고통을 통해 주신 귀한 선물

글 | **진양자 안젤라** (베드로 사도회 회원, 수원교구 상대원본당)

처음 교황청 전교기구를 알게 된 것은 2007년 서울대교구 천호동본당에서 있었던 홍보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당시 저는 고통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후라 고마운 마음과 함께 아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총을 청하며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칼데아의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느님을 체험했듯 저도 56살이라는 늦은 나이로 하느님께 정착할 때까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늘 다섯 식구가 단칸방에 월세로 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사도 25번이나 했습니다. 삶의 터전이 계속 바뀌니 본당도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기 전에는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삶의 고통 때문에 늘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개신교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 개신교로 개종하라는 권면도 자주 받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집 골목에 본당에 다니는 가톨릭 신자는 천사처럼 착한 모습이었고,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제가 스스로 성당을 찾아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꿈 때문입니다. 10년 간격으로 2번의 꿈을 꾸었는데 처음에는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연결하지 못했지만 다시 똑같은 꿈을 꾸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계속 나를 부르고 계셨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했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성당에 찾아갔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도 제가 겪고 있는 삶의 무게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우의 권유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제 안에 살아 움직이고 함께하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고통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5~6년 정도 했는데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요한 4,16)를 깊이 체험했고, 더불어 정말 원수처럼 미웠던 사람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지금은 나이와 체력 때문에 날마다 미사를 드리고 레지오 활동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레지오는 제가 세례를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삶의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말씀을 통해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비슷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며 하느님 사랑을 외면하거나 의심하는 신자들에게, 그 고통의 의미와 하느님의 섭리를 제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고통을 잘 이겨 내도록 도와줍니다. 남은 바람은 몇 년 전, 예비자 교리반에서 공부하다가 바빠서 세례를 받지 못한 아들이 하루빨리 세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남은 시간을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데 봉헌하고 싶습니다.

세계 교회 소식

세계 교회 **디지털 플랫폼 'Click to pray(클릭 투 프레이)'**

교황의 '세계 기도 네트워크'와 '젊은이 성체 운동'이 마련한 디지털 플랫폼 '클릭 투 프레이'는 현재 21개국에 있으며, 6개 언어를 제공하고 있고 곧 중국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 기도 네트워크 이탈리아 담당자인 알레산드로 피아제시 신부는 플랫폼을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한 봉사의 도구라고 하며, 기도로 하나 된 공동체를 지향하고 교황의 직무와 그의 기도를 지원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 현실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이를 통해 신자들이 교황과 가까워지고 친교의 유대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전에 결정하고 중점을 둔 주제와 문제들을 이 플랫폼에서 다루며, 필요에 따라 교황의 기도와 일치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지향을 명시하고 있다.









세계 교회 **루크 한센 신부, 세계 여성의 날에 교회 내 여성 평등 촉구**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예수회 사제이자 『아메리카 매거진』의 전임 편집위원장인 루크 한센 신부는 교회 내 여성 평등을 촉구하였다.

루크 한센 신부는 교황청에서도 최근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교황청 부서'에서 두 명의 여성 차관을 임명했고 바티칸 박물관 관장과 교황청립 대학 총장에 여성이 임명되는 등의 점진적 진전이 있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나, 교황청 리더십의 맥락에서 여성의 존재감이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구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센 신부는 "고용의 기회가 열릴 때마다 자격을 갖춘 여성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그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참조: 바티칸 방송국



From. 브라질



아직 선교지는 구경하지도 못하고 언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새내기 선교사입니다. 지난 성탄 때 기구에서 보낸 축하 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선교 성소의 시작이 '교황청 어린이전교회'였거든요. 초등학생 때 본당 주일 학교에 교황청 어린이전교회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모이랑』을 통해 세계 선교사들의 소식을 보고, 어린이 전교회 배지를 달고, 용돈을 모아 선교지를 후원하면서 선교 성소를 처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활동과 사목들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성소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세상 곳곳에 멀리 퍼진다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렇게 성장했네요.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계속 전교 기구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느님의 눈에 맞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윤희경 엘리사벳 수녀 드림** (살레시오수녀회)

From. 프랑스

여러모로 수고가 많네요. 『땅끝까지』 잘 받아 보고 있습니다.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많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습에 힘이 많이 되고 더불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루르드 성모님 발치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 **민경아 소피아 수녀 드림**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2018년 교황청 전교기구 정기 총회 개최

교황청 전교기구는 2018년 5월 28일(월)부터 6월 2일(토)까지 로마 '프라테르나 도무스(Fraterna Domus)'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지부에서는 지부장 김준철 신부가 참석합니다. 이번 총회는 '젊은이들과 함께, 모든 이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주제 관련 발표, 2019년 특별 선교의 달을 위한 전체 회의와 대륙별 토의 그리고 기구별 연례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2018년 하반기 해외 선교사 지원 신청 안내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는 해외 파견 선교사 지원의 일환으로 해마다 두 차례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해외 선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해외에서 선교하는 한국인 사제, 수도자, 평신도 선교사
- **신청 기간:** 2018년 6월 30일(토)까지
- **결과 발표:** 2018년 9월 19일(수) 이후 개별 통보
- **지원 내용:** 지원을 신청하는 선교사가 직접 동참하는 선교 사업
  (특히 선교지 원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복음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심의)
- **지원 신청 방법:** 전자 우편(pmsk@pmsk.net),
  우편 접수(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 **작성 항목:** 사업 계획서, 예산안, 장상 추천서, 선교사회 회장 추천서(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한함)
- **문의 사항:** 전자 우편, 전화(02-460-7609)

지원을 받은 후에는 선교지 소식을 작성해야 하고, 기구에서 지원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원 후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교지 소식과 지원 후기는 『땅끝까지』에 게재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도입 안내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는 회원들이 2018년도에 납부한 기부금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와 예금주가 동일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회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될 예정이며, 영수증을 처음 발급받을 회원은 기구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제공을 동의한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방문



♥ 2월 6일, 아이티에서 선교하는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대구관구 안옥화 로사리아 수녀가
방문했습니다.



♥ 3월 14일, 말라위에서 선교하는
살레시오회 진현근 프란치스코 평신도 선교사가
방문했습니다.

미사 예물 전달 (1~2월)

후원 회원들이 신청한 미사 예물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일 자	내 역	미 사 (대)	금 액 (원)
1월 24일	파푸아뉴기니 김윤일 신부	137	2,065,000
2월 7일	짐바브웨 이덕형 신부	138	2,075,000
2월 13일	파푸아뉴기니 김용호 신부	134	2,005,000
합 계		**409**	**6,145,000**

함께 기도합시다

✠ 2013년 10월 15일에 가입한 김채봉 비르지다 전교회원이 2018년 4월 5일에 선종했습니다.
김채봉 회원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와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1~2월 후원 소식

교황청 전교회 신규 회원

박윤재(대전교구 전민동본당) 손경말(인천교구 교촌본당) 장지영

교황청 전교회 후원 회원

연회비 문현숙 박경숙 서찬석 이명옥 이상순 이춘수 장을순 정임숙

월회비 강나경 강미미 강성숙 강성오 강성춘 강순희 강영민 강원경 강윤숙 강인면 강정은 강준선 강태식 강태종 고명석
고안희 고영숙 고옥자 고은주 고정희 고춘선 고행옥 고현자 고형수 고형주 곽용수 곽진희 곽태이 곽현선 구재엽 구현정
국명철 권병일 권수현 권순연 권영근 권오영 권오희 권은선 권혜란 금진숙 김경숙 김경식 김경희 김계림 김계현 김광희
김국주 김군자 김금순 김기순 김기해 김남경 김남영 김남혁 김대국 김덕순 김동랑 김동희 김두찬 김명리 김명숙 김명화
김문영 김문자 김미경 김미선 김미숙 김미연 김미옥 김미이 김미정 김민관 김민흠 김병삼 김봉숙 김부연 김분순 김 삼
김상임 김상철 김석원 김석자 김석환 김선경 김선례 김성례 김성민 김성배 김성숙 김성용 김성은 김성진 김성철 김세영
김소연 김소영 김 송 김송유 김수민 김수진 김숙경 김순남 김순우 김순자 김승유 김시환 김신영 김신자 김양순 김언연
김언주 김연규 김연식 김영순 김영실 김영엽 김영자 김영주 김영채 김영하 김영환 김영훈 김영희 김용태 김용희 김원두
김원희 김유경 김유선 김유숙 김윤규 김윤미 김윤자 김은우 김은희 김인경 김인숙 김인자 김인환 김인희 김일순 김자경
김재우 김정기 김정민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은 김정한 김정호 김종배 김종애 김종철 김종호 김종희 김주한 김주희
김준곤 김지묵 김지연 김지현 김진고 김진례 김진모 김진태 김진해 김찬숙 김채봉 김 철 김초자 김추분 김춘자 김태연
김태흥 김학은 김현동 김현배 김현석 김혜란 김혜숙 김혜영 김호식 김홍중 김화경 김화영 김화자 김황중 김효숙 김효순
김희숙 김희정 나 솔 나윤자 남경우 남궁견 남궁향숙 남기문 남삼현 남상호 남현아 남현우 남혜란 노유진 노진열 노현숙
노현지 노희균 도재홍 류기봉 류영숙 류재웅 류지영 말씀의 재가 선교회 맹선옥 맹흥순 모상선 문병국 문수영 문정환
문현숙 문혜경 문혜영 문 희 민구희 박경란 박경숙 박경인 박경자 박계숙 박귀례 박귀자 박금선 박기연 박남순 박동근
박동혁 박동환 박만자 박만재 박미란 박미성 박미수 박미정 박병선 박병익 박병호 박복실 박상석 박상운 박선희 박성기
박성순 박성희 박소라 박소연 박소영 박수현 박수환 박순덕 박연순 박연실 박연희 박영근 박영란 박옥남 박옥희 박윤목
박재완 박재준 박정수 박정숙 박정순 박정희 박종신 박종훈 박주몽 박주찬 박주현 박준성 박지연 박진명 박창목 신부
박천희 박충서 박필수 박하순 박해준 박현숙 박혜신 박혜자 박홍규 박화선 박희실 박희자 박희현 방경희 방명순 배명순
배문찬 배봉한 배숙희 배혜영 배화자 백순임 백순자 백중기 백흥관 백희정 변일서 보은본당 빈체시오회 상채옥 서경애
서계희 서문규 서복순 서성민 서수경 서영석 서영숙 서영일 서옥순 서정란 서학순 서행용 석영애 석종례 석지현 설아현
설지현 설화영 성미숙 성상모 성준용 손경말 손광옥 손명수 손문희 손애란 손인숙 손창세 손홍규 손희준 송경배 송광섭
송란주 송명숙 송범식 송석호 송승은 송옥섭 송은숙 송중연 승진숙 신귀덕 신귀자 신순복 신승호 신영혜 신원선
신정목 신부 신춘삼 신태균 심순희 심윤진 심일구 심재봉 심혜연 안경자 안경희 안계창 안기상 안덕수 안동필 안명심
안미숙 안부용 안성회 안수진 안승희 안양자 안영자 안영철 안지연 안지현 안현정 안혜영 양경숙 양도균 양문순 양미경
양순정 양승룡 양유생 양현철 양홍선 엄순희 여영욱 여운설 염승희 염우석 염주인 오경옥 오동훈 오미례 오미자 오영인
오예진 오원영 오윤서 오윤자 오인자 오주호 오태순 오희숙 우미선 우봉기 운난향 원광수 원권식 원영미 유경빈 유대식
유명희 유병조 유보라 유봉윤 유성종 유소형 유숙자 유숙희 유양자 유영옥 유은숙 유인숙 유정열 윤경숙 윤기분 윤기중
윤보나 윤복숙 윤상현 윤석진 윤성자 윤순례 윤승용 윤양숙 윤연순 윤영일 윤용범 윤은숙 윤정미 윤주원 윤준혁 윤지순
윤한옥 윤현철 이갑수 이경란 이경미 이경빈 이경식 이경옥 이경우 이경자 이경철 이경희 이계은 이광성 이광재 이귀순
이귀주 이규자 이규천 이금자 이기은 이남순 이만덕 이명승 이명아 이명옥 이명희 이문희 이미하 이민아 이민주 이병옥
이병은 이복상 이복희 이상복 이상순 이상연 이상진 신부 이서연 이 석 이석두 이석우 이선경 이선영 이성신 이성완
이성희 이소영 이수명 이수원 이수종 이수진 이숙자 이숙희 이순복 이순영 이순옥 이순자 이승연 이승재 이승현 이시연

이신영 이애자 이영숙 이영심 이영애 이영인 이영자 이영훈 이영희 이옥경 이옥자 이용우 이우보 이윤녕 이윤례 이윤서
이은화 이은희 이인수 이인재 이재민 이재복 이재연 이재현 이재희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옥 이정자 이정주 이정준
이정희 이종인 이종훈 이주영 이준숙 이진영 이차남 이찬우 이채혁 이철훈 이춘득 이춘수 이하늘 이한영 이한준 이해경
이해숙 이현무 이현순 이현옥 이형석 이혜경 이혜령 이혜민 이혜훈 이환섭 이효종 이희길 이희란 이희아 이희열 이희자
임강숙 임경옥 임광수 임덕희 임미라 임미숙 임병희 임분도 임영기 임영남 임윤자 임종학 임주영 장기순 장명숙 장문희
장미자 장보순 장선엽 장성순 장성천 장수연 장순옥 장영현 장윤희 장을순 장지영 장천수 장향숙 장흥중 전계현 전길선
전명희 전미순 전복호 전성운 전숙연 전연숙 전종문 전진하 전희정 정금순 정두용 정문국 정석원 정성효 정소진 정숙지
정안순 정영석 정영숙 정영애 정영호 정완호 정우순 정의숙 정인순 정임숙 정재원 정재형 정정숙 정찬욱 정철원 정충영
정현주 정회승 제갈광호 조경숙 조경윤 조년향 조미혜 조병권 조병학 조병호 조상현 조성애 조성옥 조송자 조수연 조순덕
조순정 조숭인 조아영 조양경 조영행 조요성 조용원 조원자 조유미 조은아 조지애 조학순 조향순 조 헌 조현일 주인해
주효순 진경자 진인정 진진옥 차영희 차정운 차혁진 차혜순 채수현 채윤제 채은경 채희자 천귀심 천선녀 천윤경 최경옥
최경은 최경일 최경희 최구현 최금례 최동자 최두성 최명자 최문성 최미경 최미숙 최보미 최복련 최선이 최선진 최선희
최성희 최세현 최영랑 최영순 최영자 최영희 최유정 최윤복 최윤서 최은나 최은성 최재정 최재철 최재혁 최정은 최중경
최혜원 최희자 추재학 하명순 하영례 하 옥 하정희 한규범 한동환 한명석 신부 한상신 한상애 한상진 한숙분 한순숙
한용애 한용주 한은애 한 정 한정욱 한종욱 한혜연 한호섭 한호승 한호연 함설희 허영민 허영애 허홍근 현계생 현재훈
홍금숙 홍새봄 홍성희 홍순기 홍순명 홍순정 홍순철 홍승표 홍영희 홍정애 홍정자 홍주희 홍지혜 홍행실 황귀남 황동석
황부자 황성욱 황성희 황재삼 황혜숙

기 타 김초자 신원선 정두용

교황청 베드로 사도회 신규 회원

심찬희,심훈희(서울대교구 구로3동본당) 배정연(마산교구 양덕동 주교좌 성당)

교황청 베드로 사도회 후원 회원

연회비 권정자 김영아 김순희

월희비 강경희 강금석 강금숙 강길자 강명호 강병수 강영민 강영준 강운룡 고옥자 고춘선 구미자 구신남 구윤관 권덕순
권성순 권수정 권숙영 권순현 권용현 권정자 권준하 권태영 길혜자 김가은 김간난 김경숙 김경원 김광시 김국주 김근호
김기영 김남순 김남영 김대수 김동규 김명숙 김명옥 김무진 김미선 김미정 김민정 김병구 김병삼 김복남 김봉심 김선경
김선형 김선희 김수연 김수정 김순희 김승기 김승현 김신영 김양수 김연규 김영경 김영균 김영숙 김영아 김영자 김영희
김옥련 김옥화 김용선 김용화 김우경 김원용 김유리 김유화 김은경 김은정 김은희 김재경 김재만 김정녀 김종선 김종연
김주철 김지영 김지혜 김지환 김진혁 김하진 김헌철 김현철 김혜숙 김혜영 김혜정 김혜진 김화순 김화자 김흥년 신부
김희정 나경민 나지민 남경우 남궁균 남기수 남상호 남현정 노병금 노승신 노연승 도재홍 류성숙 류지원 맹준호 문세훈
문재일 문주미 문중갑 박경순 박귀순 박기성 박대석 박동혁 박명안 박미정 박미주 박민영 박상배 박성경 박수정 박숙경
박순덕 박순임 박연희 박은영 박이경 박익자 박인국 박재승 박점옥 박정숙 박종안 박주현 박준성 박진규 박진영 박찬결
박창목 신부 박풍자 박혜숙 박훈갑 박희숙 방경란 배인석 배정연 변기영 몬시뇰 변상돈 변혜련 서미용 서미정 서정희
서지우 성묘야 성춘숙 손 혁 손희탁 송광섭 송란주 신경희 신영남 신영자 신한나 신혜희 심혜숙 안경수 안경자 안광수
안현정 양금환 양승룡 양인자 양정현 엄지혜 염고운 염바름 염예은 오동춘 오민정 오숙혜 오원영 오윤수 오재택 오정숙
오주희 오혜숙 우미선 원경아 유경호 유명순 유비아 유제성 유종열 유지수 유현숙 유희배 윤미선 윤선애 윤순화 윤승용
윤승환 윤하은 윤한솔 이건표 이경빈 이경옥 이경임 이경자 이계순 이관애 이규자 이기자 이명숙 이명아 이명희 이미선

이미영 이보배 이복남 이상수 이상희 이소현 이수덕 이수연 이수용 이순옥 이순진 이승남 이승준 이승환 이연숙 이영남
이영수 이영옥 이영자 이영지 이영희 이옥진 이용신 이용태 이인재 이재열 이정숙 이종구 이종순 이종해 이진영 이진이
이창효 이춘자 이충서 이충수 이필선 이향남 이현정 이혜경 이혜령 이혜숙 임병희 임상운 임성열 임연순 임영미 임혜란
장기연 장성천 장향숙 전진철 전흥수 정기옥 정미옥 정소미 정소진 정연순 정영옥 정원서 정융자 정정규 정정자 정한승
정환일 정희순 조경현 조근자 조민준 조병기 조봉희 조석순 조성애 조영옥 조유진 조지현 조평운 주경철 주종욱 지경숙
진경자 진양자 진인정 차영숙 채서진 채수현 최명선 최명환 최명희 최미환 최선영 최순영 최신영 최영룡 최영순 최은영
최의자 최인숙 최정은 최정희 최진휴 최형규 최혜숙 추민경 추재철 추현서 표정자 하동환 하순복 하정희 한경은 한선옥
한성림 한승윤 한영수 한유경 한은영 한창전 한호연 함동훈 허성수 현명옥 홍기영 홍상희 홍새봄 홍선미 홍순정 홍승재
홍승표 홍지나 홍희숙 황순자 황윤하

사랑의 성금

2018년 1~2월에 보내 준 사랑의 성금은 총 3,614,000원입니다.

개인 김인희 180,000원 김황규 60,000원 민병춘 1,000,000원 신성미 200,000원 양정환 신부 1,174,000원 윤소희 50,000원
이헌옥 100,000원 익명 60,000원 황용하 140,000원

단체 대구가르멜수녀회 100,000원 성모의자애수녀회 50,000원 예수성심전교수녀회 500,000원



2018 회원들을 위한 미사 봉헌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지부장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은

5월에는 회원들이 평소에 소원한 가족들을 찾아보고 함께 함으로써
진정한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6월에는 회원들이 세계의 고통받는 교회들을 기억하며
나눔을 통해 교회 재건에 동참하는 은총을 청합니다.

※ 후원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베드로 사도회 기도문

베드로 사도회의 수호자이신
아기 예수의 성녀 소화 데레사께 드리는 기도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당신은 전 세계 베드로 사도회의
수호자 되시는 영예를 받으셨나이다.
세상에 계실 때에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하신
당신의 뜨거운 소망을 되새기며 간구하오니
일찍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제와 선교사들을 도와주시고
선교 지역의 성소를 더욱 증진시키시어
교회의 선교 사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베드로 사도회의 수호자이신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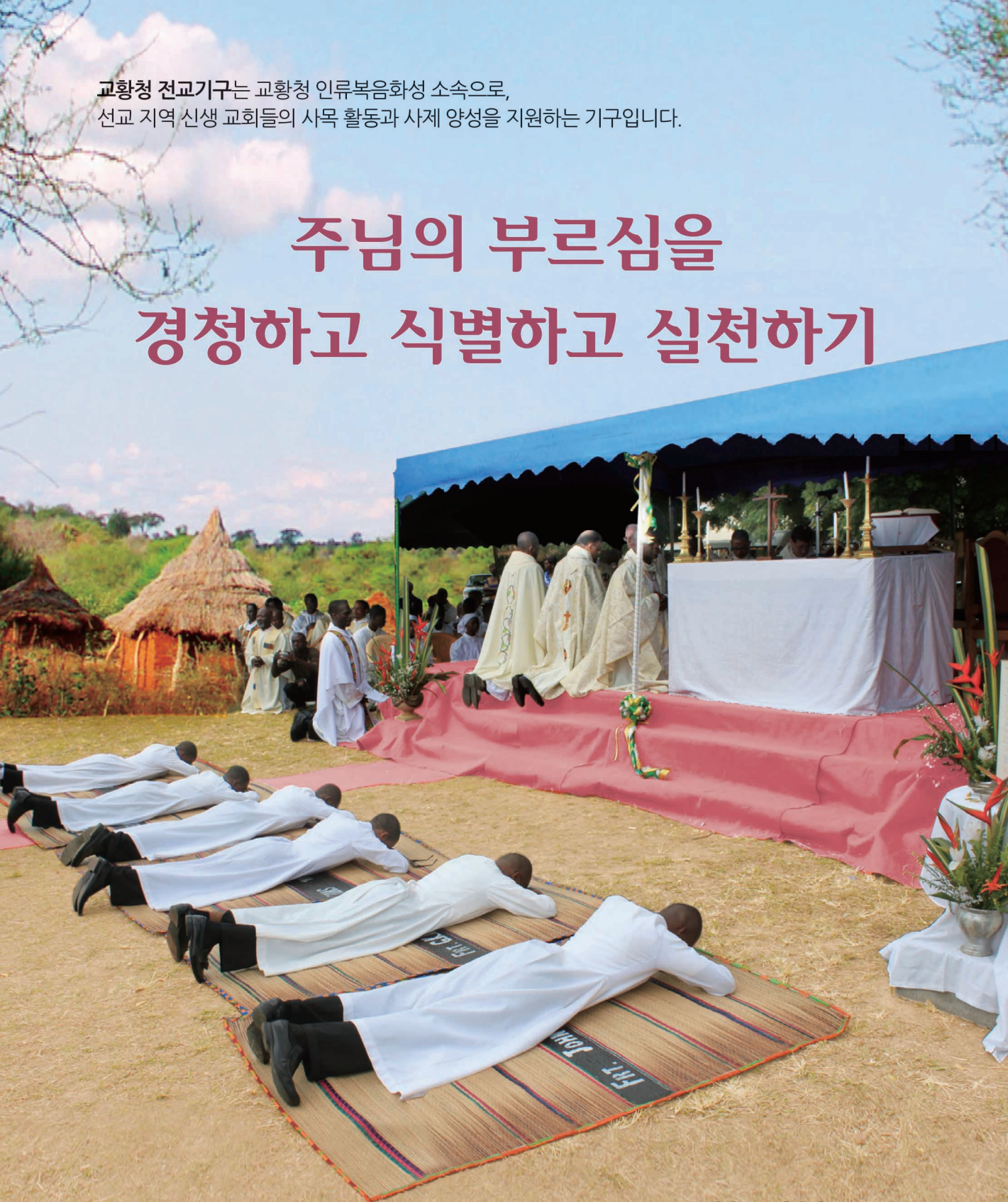
2018 세계 선교 기도 지향

5월 평신도의 사명

평신도들이
현대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창의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기도합시다.

교황청 전교기구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소속으로,
선교 지역 신생 교회들의 사목 활동과 사제 양성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경청하고 식별하고 실천하기



해외 선교 사제가 봉헌할 미사 예물을 접수합니다. ☎ 02) 460-7609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미사 예물



가난한 선교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제들이 봉헌할 미사 예물을 접수합니다.

국민 292501-01-084841 **신한** 100-027-267349 **우리** 1005-201-838316
하나 388-910003-64204 **우체국** 010231-01-002369 **농협** 351-0097-3257-83
[예금주 :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후원 회비 안내 : 후원은 또 다른 선교입니다.

지로 7524424 **국민** 045-01-0155-088 **신한** 100-027-267395
우리 1005-801-858453 **하나** 388-910003-06104 **우체국** 012823-02-225971
농협 351-0097-3281-03 [예금주 :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후원 문의 02.2268.7103 **미사 예물 접수** 02.460.7609 **E-mail** pmsk@pmsk.net www.pmsk.net